

승정원일기의 의안(醫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강도현¹ · 고대원¹ · 나향미¹ · 송재민¹ · 차웅석¹ **

King Hyojong's diseases and death records - through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Kang Do-Hyun¹ · Ko Dae-Won¹ · Gavart Marie¹
Song Jae-Min¹ · Cha Wung-Seok¹ **

¹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King Hyojong (1619-1659) was the 17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He was on the throne from 1649 to 1659. The king was a center of state rule in ancient times. This meant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status of a king was very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royal court of Joseon Korea, the treatment process for the king had to be performed under the surveillance of close associates, and this whole process had to be recorded by the official secretary. This is the reason that I referred to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Methods : Relevant articles were extracted from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Some other related sources were referred in terms of King Hyojong's ailments and treatments.

Results & Conclusions : King Hyojong suffered from various diseases during his time on the throne. Fever was the most frequent ailment; he also often had diarrhea followed by poor appetite. I assume that he must have suffered from diabetes considering his ailments. Additionally, his final treatment records clearly show that his ailments were similar to diabetic complications.

Key Words : King Hyojong, Korean Medicine,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Joseon Medicine, Medical Records.

* 이 논문은 강도현의 2010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Wung-Seok Cha, College of

I. 서론

효종은 17대 임금으로 1619년에 출생하여 1659년에 승하하였고, 재위기간은 1649년부터 1659년까지이다. 효종은 조선중기 宣祖時의 붕당정치의 시작과 임진왜란, 인조반정, 2차례에 걸친 胡亂 등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재임한 왕이었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효종의 재위기간 중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비교적 자세히 전한다. 이른바 의안기록이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는 것인데, 醫案은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의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의료의 구체적 실행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당시의 의료정황이나 의사의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에 국한되지 않은 살아있는 의학을 제시하여 준다.¹⁾ 하지만 대부분의 의안들은 치료당시 병의 상태와 처방만을 제시하는 단편적인 치료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자세한 병력과 주변사황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편적 의안들과 달리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조선시대 임금의 의안과 의학 관련 내용에는 임금의 일대기에 걸친 질병과 진찰, 처방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의 의료를 상세하게 나타내주어 연구자로 하여금 당시의 임상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효종의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는 김훈 등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논문이 현재까지는 가장 참고할 만한 연구이다.²⁾ 다만 기록적인 조선왕조실록의 국한된 기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소 소략하다. 본 연구는 자세한 진료기록을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

존의 연구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의학 관련 기록은 병증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후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심도있는 의안연구가 가능하다.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승정원일기 전문웹에 공개하면서³⁾ 연구자들이 원본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한 왕실의학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⁴⁾ 본 연구는 『承

3) 승정원일기검색 웹사이트 <http://sjw.history.go.kr/>

4) 김훈. 소현세자의 사인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3). pp.210-227.

홍세영, 차웅석, 김남일. 승정원일기의 진료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8. 21(2). pp.1-11.

김종오, 오준호, 김남일. 조선의 왕실 차치방의 운용-승정원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15(3). pp.11-17.

홍세영, 차웅석. 승정원일기의 임상의학 기록 연구. 민족문화. 2009. (33). pp.103-174.

신명호. 『승정원일기』를 통해본 昭顯世子の 病症과 死因. 사학연구. 2010. (100). pp.109-137.

홍세영. 왕실의 의약.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pp.105-113.

김훈, 이해웅. 조선시대 현종의 질병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115-124.

강도현. 승정원일기 의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재영, 이준환, 정석희. 승정원일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중기 요통치료의 동의보감과의 연관성 :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시대를 중심으로. 의사학. 2011. 20(1). pp.1-28.

이상원, 차웅석. 조선 현종의 질병과 예송논쟁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1). pp.17-30.

김동윤, 김태우, 차웅석. 경종의 병력에 대한 연구1-승정원일기 약방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11-22.

고대원, 김동윤, 김태우, 차웅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인조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23-41.

방성해, 차웅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 18(1). pp.1-11.

김훈, 이해웅.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2). pp.149-160.

김동윤.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 Daero Dongdaemoon-gu Seoul Korea.

Tel: 82-2-961-9446, E-mail: chawung@khu.ac.kr

접수일(2014년 10월 27일), 수정일(2014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2014년 11월 24일).

- 1) 김남일은 그의 논문에서 醫案의 연구를 통해 당시의 의료정황과 의료인의 수준, 역사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남일. 韓國醫學史에서의 醫案研究의 必要性和 意義.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2). p.189.)
- 2) 김훈. 조선시대 효종의 질병 및 사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4. 17(2). p.129.

政院日記』의 내용을 토대로 의학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외 정치적 상황 등은 『朝鮮王朝實錄』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주요내용은 효종의 재임기간에 걸쳐 나타난 질병들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효종이 앓았던 대표적 질환들을 분류하고 그 증상에 관하여 연구한 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 분석하고 해당 증상에 사용한 처방들을 정리한 것이다.

II. 본 론

1. 효종의 질병 분류

질병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병의 원인과 증상은 복잡다단하여 어떠한 분류방법으로 모든 증상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질병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질병을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록자인 당대의 진료자들의 구분방식 즉 내상 외감기준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내상외감기준법은 원래 李杲(1180-1251)가 중기를 보해서 치료해야하는 질병들을 내상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상한론식 처방을 사용하는 증상들을 외감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생겨난 질병의 구분법이다.⁶⁾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당시의 내의원 의 의원들은 이러한 기준법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자는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질환을 외감, 내외겸첩, 내상, 그 외 중창질환으로 구분하였다.⁷⁾ 일반적인 외부사기에 의한 감기와 유사하거나 감기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승정원일기의 질

병인식에 근거하여 외감으로 하였고 내상은 내상증은 외부 사기의 침입 없이 안으로 장기(臟氣)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⁸⁾ 승정원일기에서도 그 표현을 사용하여 일군의 질환들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內外兼挾은 위에서 말한 내상과 외감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內外兼挾’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挾外感, 挾內傷, 兼內傷, 兼外傷 등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 내외겸첩으로 정의하였다.

(1) 外感

『承政院日記』에는 외부의 邪氣가 침입하여 발생하는 외감질환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는 “感冒”이다. 여타 외감의 모든 증후들은 이 감모의 증상에 수반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효종은 感冒의 병을 앓는 경우 모두 오한⁹⁾¹⁰⁾, 두통¹¹⁾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외감으로 인한 感冒의 초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침입한 사기의 종류에 따라 보편적인 感冒의 처방에 몇몇 약재를 가감하는 처방으로 치료하였다. 暑邪의 침입으로 오한의 증상은 없으나 頭痛, 困憊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淸暑益氣湯¹²⁾을 처방하였고, 感冒의 증상¹³⁾이 있는 경우에는 蔘蘇飲, 荊芥連翹湯 등으로 치료하였다. 인후증상¹⁴⁾은 기록상으로 효종이 단 한번 앓았고 내의원에서는 參

김동윤, 김남일, 차웅석. 승정원일기의의안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에 대한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1). pp.41-53.

김동윤,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 pp.15-31.

5) 이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과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를 분석하되 『承政院日記』가 자세한 관계로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6) 차웅석, 이천 의학사상의 학술계통 및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4-2, 2001, p217.

7) 직접적인 진단을 통해서는 아닌 기록을 살펴서는 병의 정확한 원인을 구분할 수 없어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내의원 의원들의 기록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방법을 적용하였다.

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9)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1일 “...一時感冒之惡寒, 發散之藥”

10)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1월 9일 “藥房啓曰 臣等親承當風惡寒, 氣候似虛之教...”

11)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6월 26일 “藥房啓曰, 聖候近日所患, 時時頭痛, 腹中不平之候.....”

12)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6월 29일 “...商議症候, 則皆以爲淸暑益氣湯, 更加地骨皮·烏梅·肉黃連炒各七分, 黃芩五分, 連進三貼, 即當依此劑入, 而似聞近日, 感[或]有惡寒之候云...”

13) 자세한 증상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傷寒의 초기” “감모의 중”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오한, 두통의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4)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2월 5일 “...始審有吞涎有妨之候, 更爲商議, 則荊芥穗·薄荷各五分添加, 宜當云. 依此劑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蘇飲에 강황, 형개, 박하를 첨가하여 처방하였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牛黃涼膈元을 처방하여 치료하였다. 효종은 咳嗽¹⁵⁾, 咳喘 등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해수에 대해서 내의원의 의관들로부터 肺熱¹⁶⁾, 氣虛¹⁷⁾¹⁸⁾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폐열로 인한 경우에는 청폐탕加 소자, 혹은 청기화담탕, 全主清肺湯 등을 처방하였고 기허로 인한 경우에는 가미익기탕, 익기양신탕, 이모청순탕 등을 처방하였다. 효종은 한때 실음¹⁹⁾때문에 고생하기도 했는데,²⁰⁾ 清氣化痰湯²¹⁾, 杏蘇湯²²⁾으로 치료하였다. 효종의 외감치료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餘熱之證이 있다. 대개 외감을 오래 앓은 후에 고비는 넘겼으니 후유증으로 고생한 기록인데, 이러한 여열의 증상은 餘熱²³⁾, 虛煩²⁴⁾, 口渴²⁵⁾, 虛汗²⁶⁾, 津濁²⁷⁾ 등의 형태

로 나타난다.

(2) 內傷

효종의 질병에 관한 기록 중 내상으로 인한 질환들은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熱로 인한 번갈, 상열, 허번, 곤뇌 등의 증상이고, 둘째는 自汗, 咳嗽, 기력부족의 기타 질환이다. 이 중 熱로 인한 증상이 특히 많아서 “제사와 교외로 거동하실 때 熱勢가 반드시 더해질 것이므로 예방책으로 涼膈散 三貼을 올리겠습니다.”²⁸⁾ 는 기사처럼 熱症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약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상열, 번열, 번갈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상열은 신체 상부 특히 얼굴에서 자각적으로 열감을 느끼는 증상이며,²⁹⁾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갑갑함을 느끼는 증상을 번열이라 하고 이와 더불어 갈증을 느끼는 증상은 번갈이라 하는데³⁰⁾ 효종의 경우 津液과 血이 허하여 陰虛火動으로 이러한 열증을 앓은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³¹⁾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십전대보탕³²⁾과 같은 補劑에 황련 같이 열을 꺼주는 약재나 맥문동, 오미자 같은 補陰하는 약물을 가감하여 사용하거나, 죽엽석고탕³³⁾ 같은 보음하면서 열을 꺼주는 처방을 사용하였다. 口渴, 困惱등의 증상도 각각

- 15)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3월 5일 “藥房啓曰, 春陰未霽, 伏未審邇間, 聖體調攝, 若何? ... 答曰, 前日所患, 已盡差愈, 而近得咳嗽喘急等症, 頗甚矣.”
- 16)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5일 “... 仍與柳後聖諸御醫等商議, 則玉體中小癩及咳嗽, 發於晨昏之症, 皆由於肺熱...”
- 17) 『承政院日記』 효종 7년 2월 11일 “...有咳嗽之候有加無減之教, 臣等憂慮益切. 卽與諸醫商議, 則聖候因中氣虛而表又虛, 以致外感, 宜用加味益氣湯二貼云...”
- 18)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3월 28일 “...則皆以爲感冒難解, 咳嗽之餘, 肺經虛弱, 聲重鼻塞之候, 因此而發. 二母清順湯, 加訶子炒五味子各七分...”
- 19) 『承政院日記』 효종 4년 12월 9일 “..... 但有失音之候, 此時咳嗽日久, 咽喉微有所閉, 玉音不快...”
- 20) 예를 들어 즉위년 7월 24일 중기가 부족하여 외감의 증상으로 해수가 나타난 이후 치료되지 않아 8월 27일에 실음의 증상이 나타났다.(『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27일)
- 21)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9월 2일 “...聖候與前別無加減, 則依前清氣化痰湯五貼, 加劑以入之意...”
- 22) 『承政院日記』 효종 4년 12월 4일 “藥房再啓曰, 臣等因下醫官之教, 更爲商議, 則咳嗽未減之前, 不可停藥, 前進杏蘇湯, 加生知母一錢·枳殼·片苓各五分, 元方, 去蘇葉, 代蘇子炒五分, 三服進御...”
- 23) 『承政院日記』 효종 7년 4월 9일 “...聖候若何, 餘熱比前稍減乎?...”
- 24) 『承政院日記』 효종 5년 11월 30일
- 25)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0월 18일 “...則口渴引飲之症, 感冒後餘熱, 尙在肺經而然也...”
- 26)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0월 26일 “...則以爲感冒和解後, 虛汗亦由餘熱未盡之致, 益氣養神湯...”
- 27) 『承政院日記』 효종 5년 12월 12일 “...有津濁之候, 此是餘熱未盡而然也. 與諸御醫商議, 則益氣養神湯, 加地骨皮七分, 竹茹五分...”

- 28) 『承政院日記』 효종 6년 3월 2일 “藥房再啓曰, 伏承聖批, 有餘熱未盡之教, 臣等之憂慮更切, 此際又有郊外舉動, 熱勢必添. 與諸御醫及柳後聖等商議, 則皆以爲不可無預防之劑, 加減涼膈散三貼進御宜當云, 此藥劑入之意, 敢啓.”
- 29) 『承政院日記』 효종 3년 6월 4일 “...答曰, 失音之候, 別無服藥之事, 而但近來上熱之症頗甚, 面部烘熱, 有時如醉, 駭於觀瞻, 欲爲治之矣”
- 3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 31) 上熱의 증상에 『承政院日記』 효종 3년 6월 4일에 加減涼膈散을 사용하였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다 7월 24일 養血清火湯을 사용하고 나서야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록에서도 내상으로 인한 열증에는 주로 補陰하는 처방에 열을 없애는 약물을 가감하여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32) 『承政院日記』 효종 9년 7월 24일 “...十全大補湯元方中, 肉桂一錢減半, 加山茱萸·牛膝酒洗各一錢, 麥門冬·五味子·澤瀉各七分, 厚朴五分”
- 33) 『承政院日記』 효종 4년 5월 1일 “...聖候朝前口渴虛煩, 午後微有困惱, 而向夕蘇快, 夜則寢睡安穩, 此乃胃熱餘存, 上熏於心肺也. 竹葉石膏湯, 加生知母一錢...”

번갈, 번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내상의 증후로서 설사에 대한 기록도 종종 보이는데, 내의원은 이를 위해 삼백탕³⁴⁾을 사용하였다.

(3) 內外兼挾

효종의 내외겸협 증상은 설사, 소화불량과 같은脾胃계 증상이 많았고 上熱, 煩渴 같은 熱症도 많았다. 외감협내상에서 나타나는 소화불량,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은 中氣가 부족한 소화기계가 약한 사람이 외감병에 걸리는 경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 기력부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효종이 중기가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외감증상이 더해진 것이라고 보았을 경우 藿香正氣散을 기본으로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치료하고³⁵⁾, 중기부족(裏虛)과 외감(表虛)으로 표리가 모두 허하여 기력부족³⁶⁾한 후자의 경우 補中益氣湯을 가감하여 치료하였다. 그중 특히 야간에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삼백탕³⁷⁾을 처방하였다. 그리고 수면 불안, 盜汗의 경우에는 죽여온담탕을 가감하여 치료하였다.³⁸⁾ 煩渴, 上熱, 虛煩 등의 증상도 종종 보이는데 餘熱을 치료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4) 腫瘡

종창은 서양의학의 피부과 질환에 속하는 증상들

- 34) 『承政院日記』 효종 4년 5월 10일 “...泄瀉之候, 極爲驚慮, 以虛煩之症, 連進清涼之劑. 且值連有國忌, 累日齋素之致, 臣等固已爲慮矣, 卽欲入診, 而恐勞聖體, 未敢請也. 曉進三百湯...”
- 35)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7월 24일, 11월 10일, 4년 11월 13일 등 여러 번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 36) 『承政院日記』 효종 4년 5월 25일 “...中氣不足之患, 故自前少觸風寒, 則輒有外感. 況今新經重患之餘, 表裏俱虛, 氣力之不得強健, 勢所然也. 宜以補中實表爲主, 當用加減補中益氣湯數十貼云, 姑先劑入五貼之意...”
- 37) 『承政院日記』 효종 9년 8월 13일 “...夜間大便利滑, 至於三巡, 臣等不勝驚慮之至. 仍與柳後聖·趙徵奎·朴頴及諸御醫等商議, 則皆以爲三白湯三貼進御宜當云...”
- 38)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0월 3일 “...始審有感冒之候, 臣等不勝驚慮之至, 敢來問安. 必須卽進和解之劑, 可無攔留之患. 今日入診, 詳審聖候, 然後議藥, 何如? 答曰, 所患不至大段, 而但自去月念間, 夜不安寢睡, 晝畏寒氣, 不得出外, 且鼻塞而已...”, “...鄭後啓等商議, 則竹茹溫膽湯, 加桑白皮微妙, 地骨皮·杏仁·生地母各一錢, 防風五分, 連進三貼宜當云...”

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는 종창을 앓는 환자가 많았고³⁹⁾ 왕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효종이 앓았던 종창질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종 3년 12월 13일 입주위에 창증이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백련산에 고백반과 오배자를 섞어 발랐다.⁴⁰⁾ 그리고 효종은 煩渴의 열증을 앓고 있던 시기에 風邪가 침입해 풍열이 피부의 사이에 머무름으로 인해 癩疹을 앓았는데, 그 증상이 심해 수면을 방해할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¹⁾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관들은 초기에 升麻葛根湯을 처방하였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防風通聖散으로 처방을 바꾸어 효과를 보았다.⁴²⁾ 그 밖에 종이 생겨서 고생한 경우는 효종은 총 세 번의 종기를 앓았는데 그중 첫 번째인 손바닥부위의 종기는 심과 위의 경락의 열로 인한 것이고⁴³⁾ 두 번째 다리부위의 종기는 침을 맞은 부위에 열기가 영긴 것으로 인한 것이고⁴⁴⁾ 세 번째 머리부위의 종기는 열독으로 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⁴⁵⁾

- 39) 서지연은 그의 논문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주거생활,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 질경으로 인해 기가 잘 울결되는 체질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瘡瘍이 많았다”고 하였다. (서지연, 任彦國의 治腫醫學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40)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2월 13일 “...口傍瘡痂之處, 雖非大段, 前頭迎勅, 只隔四五日, 恐有妨於舉動. 臣等不勝憂慮之至. 所患當處, 漸有乾濕之候乎?...”, “...黃柏灸·黃連·胡粉炒, 各一錢細末, 乃是醫方, 柏連散, 最有於聖候所患, 更加枯白礬末五分, 先用五倍子煎水淋洗後, 以軟帛拭乾, 調末藥塗傅, 而數洗數傅, 日三爲度宜當云...”
- 41)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3일 “...癩疹卽皮膚間風熱, 升麻葛根湯...”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4일 “...傷處浮氣癩疹煩渴等候, 視昨日加減, 亦何如?...”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5일 “...答曰, 諸症夜來稍似減歇, 而癩疹之癢, 達夜不已, 甚可苦也...”
- 42)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5일 “...升麻葛根湯, 已盡四貼, 癩疹尙未銷散, 此藥則停止, 防風通聖散, 祛風熱疏腠理, 治癩疹, 而兼治打撲傷損...”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6일 “...癩疹今既不發, 停防風通聖散...”
- 43) 『承政院日記』 효종 9년 1월 21일 “...則以爲此症, 似是疔候, 而發於口手掌心包經之分野, 其源蓋出於心胃二經之火, 宜用清瀉之劑, 消散其毒氣, 千金漏蘆湯, 加黃連酒炒七分...”
- 44) 『承政院日記』 효종 9년 8월 12일 “...鍼穴近處, 有凝聚熏熱之氣, 此必膿汁易止, 餘毒未消之致...”
- 45)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4월 27일 “...自上所患處, 在於

	외감	외감합내상	내상	증상
즉위	두통, 곤뇌, 오한	해수 중기부족으로 외감 설사		小癰
원년	暑熱	해수 식욕감퇴 중기부족, 폐열감모		
2년	감모-慄寒		虛脹, 煩渴	
3년	감모-설사, 두통 불면, 외한, 비색, 도한, 해수 오한, 인후이물감	虛汗 上熱, 구갈		입주위 부스럼
4년	감모, 설사, 두통, 해수, 변열 감모	현훈, 삭변, 疝氣 구갈, 허변, 곤뇌		
5년		허변, 불수, 오풍		
6년		한출 곤뇌 虛煩		
7년	감모, 눈병, 해천 눈병	외감여열, 변갈	변갈	귀부종, 소양, 통증
8년	상한이 심하다 해수, 변열	상초열 여열		안포부기 눈병계속
9년			변열, 대변건조 변갈, 변열	손에 종기 종기제발, 부기 은진 족부-부기, 신통, 痿緩
10년	오한 감모 감모	허한, 변열	불면, 변갈, 해수 변열 곤뇌, 설사	안질 痿緩 그대로 발제부위 종기 고름, 통증 안포부기

<Table 1.>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469-1659)

2. 시기별 증상과 처방

효종이 재위기간 중 앓은 질병들을 상기의 분류에 따라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Table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재위 초기에는 외감과 내외겸협의 질병들을 주로 앓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상 증

髮際上一寸餘, 雖非毒癰之類, 其勢似難自消, 故與柳後聖等及御醫商議, 則皆以爲, 荊防敗毒散, 連進三貼, 以消其毒氣, 金銀花煎茶, 和牛黃一分, 連次進御, 以除煩熱之候, 且傳促膿膏, 宜當云. 牛黃則各裹一分, 先入五貼, 而荊防敗毒散及促膿膏, 亦爲劑入, 何如? 答曰, 依啓..."

재위초기						
	최초발병일	초기증상	초기 처방	증상변화일	증상변화	처방변화
즉위년 1649년	6/26	두통, 관뇌, 오한	청서익기탕	7/2	小癩	
	7/24	중기부족으로 외감	곽향정기산	7/28	해수, 오한	청폐탕
				8/5	부스럼	청수녕폐탕
원년 1650년	11/10	식사량 감소, 감모	곽향정기산	11/11	설사	
	1/16	해수(虛勞傷積)	가감보중익기탕	2/18	허한, 감모	보중익기탕
	2/24	감모, 두통	청상건통탕	2/27	증상호전	황급탕, 익위중양탕
	6/21	감모, 변열	이향산	7/25	재발, 식사불합	이향산
	8/24	오한, 한열	삼출조중탕	9/14	오한	가감익기탕
2년 1651년	윤11/15	감모, 오한	해표이진탕	윤11/18	寒寒	보중익기탕
	3/12	감모로 증후불안정	곽향정기산	3/20	오한, (허창, 수면불안)	익기양신탕, 죽엽석고탕, 청심연자음, 저두결보중익기탕
3년 1652년	10/12	감모	삼소음	4/4	허한, 변갈	이진약
				10/18	약한 감증	사백사
				10/24	설사, 두통	인삼강화산
				10/26	허한	익기양신탕
	6/4	상열, 실음	가감양격산	6/7	구갈	가감양격산
3년 1652년				7/13	증상지속	증마화련탕
				7/24	외약	양혈청화탕
	10/3	감모, 수면불안, 코막힘, 외한	죽여온담탕	10/5	도한, 수면불안	
				10/6	해수	익기양신탕
	12/5	감모, 오한, 인후이물감	삼소음	12/6	호전없음	인산폐독산
			12/7	오한호전, 인후병	이진약+ 우황량격원	
	12/13	입주위 부스럼	백련산, 고백반+ 오배자(외용)			

<Table 2>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649-1652)

상의 질병들을 앓았다. 이어 내상 증상이 등장 하면서 종창도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 혹은 질병의 만성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즉 나이가 들면서 精氣가 쇠약해지거나 반복되는 외감의 질환으로 체질적 결함이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내상 질병이 만성화 되는 것이다. 효종의 경우 비위가 약한 체질이었는데 외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외감의 증상 지속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내상이 만성화되어 말년에는 내상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1) 재위 초기

효종 즉위년부터 3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하듯이 1년에 한 두번 정도 두통, 오한, 해수 등과 같은 외감으로 인한 증상과 그 후유증이 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비위가 약하여 외감합내상증으로 소화기계 증상을 많이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효종이 소화기계가 약한 체질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처방을 살펴보면 감모의 초기 증상에는 청서익기

탕⁴⁶⁾, 삼소음⁴⁷⁾ 같은 외감증의 대표적인 처방과 감모와 더불어 비위가 상하였을 때 사용하는 곽향정기산⁴⁸⁾을 주로 사용하였다. 후유증의 경우에는 비위를 보하는 보중익기탕⁴⁹⁾ 종류의 처방과 기침을 그치게 하는 청폐탕⁵⁰⁾, 열증을 완화시키는 사백산⁵¹⁾ 등의

46) 清暑益氣湯 『東醫寶鑑』：治長夏濕熱蒸人 四肢困倦 精神短少 懶於動作 身熱煩渴 小便黃而數 大便溏 而頻 或泄或痢 不思飲食 氣促自汗 蒼朮 黃芪 升麻 人參 白朮 陳皮 神麴 澤瀉 黃栢 當歸 青皮 麥門冬 乾葛 甘草 五味子 剉作一貼 水煎服飲 『東醫寶鑑』

47) 參蘇飲 『東醫寶鑑』
治感傷風寒頭痛 發熱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潮熱 人參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 陳皮 桔梗 枳殼 甘草

48) 藿香正氣散 『東醫寶鑑』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如不分表裏 證以此 桃仁經絡不致變動 藿香 紫蘇葉 白芷 大卜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 製 桔梗 甘草

49) 補中益氣湯 『東醫寶鑑』
治勞倦虛損 身熱而煩 內傷虛證 一切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而煩 自汗倦怠 黃耆 人參 白朮 當歸 甘草 陳皮 柴胡 升麻

50) 清肺湯 『東醫寶鑑』
治久嗽 及痰嗽 肺脹嗽 黃芩 桔梗 赤茯苓 桑白皮 陳皮 貝母 當歸 天門冬 梔子 杏仁 麥門冬 五味子 甘草

51) 瀉白散 『東醫寶鑑』

약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증상과 변화 그에 따른 처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재위 중기

효종 4년부터 8년까지의 시기에 효종은 번갈, 허번, 곤뇌 등의 열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열증은 감모가 오랫동안 낫지 않아 생긴 후유증이나 내상증으로 나타나는데, 증상이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내상의 주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칠정이다. 『承政院日記』와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효종의 성격을 추측해보건데 효종은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²⁾ 『東醫寶鑑』에 따르면 칠정 중 화를 내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심하고 화를 내면 간과 비가 손상되어 다른 장기들도 모두 상한다 하였다. 또 혈이 위에서 머무르고 기가 아래에서 병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를 잘 낸다 하였다.⁵³⁾ 또 크게 화를 내면 간에서 화가 일어나고 화는 元氣를 해친다고 하였다.⁵⁴⁾ 사료의 기록과 의서들을 살펴 보건데 비위가 약한 체질과 많이 나타나는 열증은 효종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 중 여러 기사와 내용과 여러 기록을 통해 증상과 처방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열로 인한 오심, 산기, 설사, 허번, 귀부위의 붓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증상에 사용한 처방으로 치자

죽여탕, 죽여석고탕, 시호청간탕이 있다. 이중 치자 죽여탕을 살펴보면 『東醫寶鑑』 「구토문」에 나오는 처방으로 위열로 인한 메스꺼움과 헛구역질을 치료하며 치자, 진피, 죽여로 구성되어 있다. 약물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치자는 간, 위, 폐경의 화를 사하고, 죽여는 위열을 몰아내어 열을 내리고 혈분의 열을 꺼 주며 죽여는 비위를 사한다. 죽여석고탕, 시호청간탕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이렇듯 처방 내용을 살펴보아도 화를 많이 내던 성격으로 인해 효종은 열증을 많이 앓았다.⁵⁶⁾

이 시기에 이러한 열증과 더불어 갈증의 증세가 자주 나타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消渴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⁵⁷⁾ 이러한 추측은 당시 사용한 처방들이 뒷받침해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7년 4월 20일 생긴 번갈증을 소갈의 증상으로 파악하고 『東醫寶鑑』 「소갈문」에 나오는 맥문동음⁵⁸⁾을 사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양격산⁵⁹⁾ 등 열을 제거해주는 처방에 지모, 황백과 같은 陰中之火를 제거해주는 약물을 가감하여 사용하고, 시호사물탕⁶⁰⁾ 등 열을 치료하면서 음을 보하는 처방을 사용한 것 또한 소갈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소갈 증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비위에 열이 울결되어서 생기거나, 주색을 가까이 하여 생기는데 효종의 경우에는 평소 주색을 멀리하였으나⁶¹⁾ 화를 잘

治肺實 桑白皮 地骨皮 甘草：或加知母 貝母 桔梗 梔子 麥門冬 生地黃 亦可

- 52) 효종실록 3년 10월 17일, 4년 1월 5일, 5년 1월 2일 등 신하들의 상소내용에서 알 수 있으며 특히 9년 12월 27일 “나에게 기질상의 병통이 없을 수 없어 한창 성이 날 때에는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은 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하여 꼭 끝을 보고난 뒤에야 그만두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근일부터는 화가 날만한 일일 경우엔 참고 버두었다가 밤에 생각하여 화가 짐차로 풀린 다음에 처리하므로 과오가 적게 되었다.”에서는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53) 『東醫寶鑑』 「神」. “...血并於上 氣病於下 心煩善怒...”, “七情傷人 惟怒爲甚 蓋怒則肝木便克脾土 脾傷 則 四臟俱傷矣”
- 54) 『東醫寶鑑』 「火」. “...大怒則火起於肝...”
- 55) 『承政院日記』 효종 4년 4월 19일 “...即今聖候, 餘熱未盡, 又有惡心之候, 諸醫以爲, 此時脾胃之熱, 先用橘樞竹葉湯二貼, 以除惡心, 然後疝氣泄瀉等症, 自當漸次治之云” 『承政院日記』 효종 7년 10월 7일 “...始伏審右耳有浮氣痒

痛之症, 而去夜則浮氣益高, 且有熱候, 耳孔浮窄, 痒痛尤甚...” 등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56) 惡心, 疝氣 등의 질환은 간, 위의 열로 인한 증상으로 怒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귀부위의 붓기도 성념으로 인해 肝, 膽經에 열이 울결해서 생긴 증상이다.
- 57) 소갈의 가장 주된 증상인 갈증과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중 다뇨의 증상은 한번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량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내의원에서 왕의 대변은 매번 수거에 확인하였으나 소변은 그렇지 않아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8) 麥門冬飲子 『東醫寶鑑』
治脇消 麥門冬 知母 天花粉 人蔘 五味子 葛根 茯神 生地黃 甘草
- 59) 涼膈散 『東醫寶鑑』
治積熱煩躁 口舌生瘡 目赤 頭昏 腸胃燥澀 便秘結 連翹 大黃 芒硝 甘草 薄荷 黃芩 梔子
- 60) 柴胡四物湯 『東醫寶鑑』
治三陰經 溫癰 或夜發者 柴胡 生地黃 人蔘 半夏 黃芩 甘草 川芎 當歸 赤芍藥

재위중기						
	최초 발병일	초기증상	초기처방	증상 변화일	증상변화	처방변화
4년 1653년	2/8	감모, 한출, 두통, 번열, 해수, 곤뇌	해표이진탕	2/10	불명	가감양격산
	4/12	감모	구미강활탕	4/14	한열이명	소시호탕
				4/15	변삭, 수면불안	
				4/19	오심, 산기, 설사(간열)	골피죽여탕
				4/20	약간차도	시호사물탕
				4/22	요통	사물탕
				4/25	기력침곤, 불면	생맥산, 여자죽
				4/26	여열(중기하)	삼호작약탕
				4/28	종아집	가감양격산, 익원산
				5/1	오전-구갈, 허번	죽여석고탕
				5/10	오수-곤뇌	
				5/13	야간절사	삼백산
						조리
	5/25	기력없음	가감보중익기탕			
						100여첩
	11/13	감모	곽향정기산	11/25	감모불림	삼출조중탕
				11/27	해수	이전약
				12/4	해수(실음)	행소탕
5년 1654년	8/11	瘡處爬癢	椒井			
		미상		11/30	감모가 낮지 않아, 허번, 불수, 오통	시호사물탕
6년 1655년	3/2	여열	양격산	12/2	차도있으나 津潤, 여열	익기양신탕
	8/18	허번(심하지 않음)		3/13	한출, 未寧之候	보중익기탕
7년 1656년	2/8	감모, 눈병	빙열산	2/9	눈병호전, 감모그대로	해표이진탕
				2/11	해침	가미익기탕
				2/12	해침차도, 근원없어지지 않음	청화화담탕
	3/12	眼疾-불가 가까이 하기 힘들도 백백	가감사물탕	3/17	종아집	연교음자
	4/8	외감여열	가감양격산	4/10	근본제거를 위해	청폐탕
	4/20	번갈	맥문동음			
	10/7	귀 부기, 가려움, 통증	시호청간탕	10/8	부기감소, 번갈	이전약
				10/14	제발	청간탕
8년 1657년	2/15	안포 부기	거풍청열산	10/17	거의나음, 감모증상	익기양신탕
				2/16	붓고, 붉음	수침
				2/20	심해침, 약한외감	구고탕
				2/22	상한, 심	소시호탕
				2/26	반정도나음, 상조 열	가감양격산
				2/28	눈병계속	빙열산
	11/7	해수	청화화담탕	11/25	번열	가감양격산, 증마갈근탕

<Table 3>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653-1657)

내는 성격과 체질로 인해 이러한 소갈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증상과 변화 그에 따른

처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61) 『송자대전』 「송서습유」 권7 잡저 악대설화. pp.1-17. (한 국고전번역원) 중 "...나는 주색을 끊고 경계하여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이로 인하여 나는 늘 정신이 맑고 몸도 건강해졌으니..." (http://www.itkc.or.kr/) 이 기록에서 몸이 건강하였다는 것은 북벌을 할 여력이 있음을 내세우기 위함이지 실제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

(3) 재위 말기

효종 9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시기에는 번갈, 번열 등의 열증이 매우 심하고 중기가 여러 부위에서 번갈아 나타나 병세가 매우 심하였다. 앞선 두 시기의 병증에 관한 기록은 『承政院日記』에서만 자

		계입말기			
9년 1658년	1/21	종기(手)	청금누로탕, 고약 (황화묘, 노충, 붕밀)		
			1/20 종기는 좋아짐, 변열, 대변건조		
			1/29 종기 재발(골지 아래 붓기)		
			2/5 환처가 단단		
			2/9 나옴		
	6/18	낙상으로 다리 부기	당귀수산, 유험산통고	6/22 元戎接筋丹	
				6/24 은진, 변갈	
			6/25 은진이 심하고 다른 증세 호전	갈근승마탕	
			6/27 은진 발작 없음, 변열, 寒縮	방풍통정산	
			7/3 침혈에서 진액나옴	인삼과독자	
			7/6 한열양래	팔진탕, 신가귀 침놓기 시작	
			7/17 대변증후 그치고 수면 좋아짐	팔진탕	
			7/18 오후 변열 심해짐		
			7/22 寒縮		
			7/24 변열이 심하다	십전대보탕	
			8/1	남반환	
			8/10 변열 낮지 않았는데 감모	형방과독산	
			8/12 한출, 변열, 혈자리 열기운	청혈소독음	
			8/13 밤사이 설사	삼백탕	
			8/14 針, 고름짜냄	십전대보탕	
			8/17 식욕부진, 변열		
			8/25 종기 붉어짐, 고름		
			9/9	십전대보탕	
			9/13 콧물(폐, 위의 풍열)	형개연교탕	
			9/16 痢가심	장름산	
			9/17 그침	남반환	
			9/21	팔물탕	
			10/5 침만 조금 좋다		
			11/14 발 붓기 針		
			11/21	천화산, 저두환	
			12/6	창조탕	
			12/11		
			12/29		
	10년			1/9 오한, 기운없음	
				1/10 발가락 붓기 다소 좋아짐	
				1/27	보중익기탕
				2/1	옥병풍산, 호잠환
				3/2	양격산
				3/5	
				3/18	
				3/23	청폐탕
				3/28	이모청순탕
				윤3/3	방풍통정산
				윤3/9	팔진탕
				윤3/15	
				윤3/21	빈열산
				윤3/23	석교탕
			윤3/29	팔진탕	
			4/11		
			4/23		
			4/27		
			4/29	형방과독산, 미바엽(고름)	
			4/30		
			5/1		
			5/2		
			5/4	의위증양산, 생맥산, 糖屑劑	
				石灰末·血竭末·紫檀香末· 槐花末·百草霜末·瓦粉末	
				陳皮竹茹湯, 獨蓼湯, 清心元·竹瀝·薑汁	

<Table 4>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649-1658)

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반해 이 시기의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효종의 증상이 심각했다.⁶²⁾ 이때 가장 심각하였을 뿐 아니라 효종의 간접적인 사인이기도 한 증상이 중기 증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종은 중기부터 소갈을 앓기 시작하였는데, 중기 증상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東醫寶鑑』 「소갈문」의 소갈전변증을 살펴보면 소갈이 말기가 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던 사람은 반드시 腦疰나 背瘡 생긴다고 되어있고, 소갈이 심해져서 맹렬한 불이 타올라 분육에 머무르면 옹저가 생긴다고도 되어있다.⁶³⁾ 즉 중기에 시작된 소갈증상이 말기 2년 동안에 손, 발, 얼굴의 순차적인 중기 증상으로 전변되었고, 중기 증상이 2년 동안 계속 되어 그 증상이 심각해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치료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중기 증상으로 앓던 효종은 급기야 중기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게 된다.⁶⁴⁾ 9년 1월 21일 변열과 대변건조 같은 열증을 수반한 팔부위(곡지부위)의 중기는 20일 정도 만에 치유되었는데, 이때 사용한 처방으로는 양혈청화탕, 선전화독탕 등의 탕제와 삼신고, 황화묘, 노충, 봉밀로 제조한 고약이다. 9년 6월 18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죽부의 중기는 1년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3. 효종의 사인

효종의 죽음에 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는 당시의 君弱臣強한 풍토와 효종의 복벌론, 봉당정치의 만연 등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또 당시 최고 권력자인 송시열과의 독대⁶⁵⁾ 후 2

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 사후 梓宮⁶⁶⁾의 크기가 맞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사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이에 필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효종의 죽음에 관하여 정치상황적, 의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효종의 복벌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려는 신하들과의 다소 불편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을 방증해주는 몇가지 사료들, 그리고 왕의 죽음이라는 극적인 요소때문에 소설⁶⁷⁾과 역사에세이⁶⁸⁾에서 효종의 타살설이 알려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효종의 말년의 치료기록을 참고해서 타살설의 신빙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상황적 분석

효종의 사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산당과 갈등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는 효종의 복벌론이다. 효종은 즉위하면서부터 復讎雪恥를 지상과제로 삼아 복벌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친청파인 김자점⁶⁹⁾ 일파 등을 숙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위 기간 동안 복벌을 위해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화약과 대포를 제작하며, 능행길에는 열무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崇武정책을 기반으로

』의 「송자습유」에 약대설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복벌과 李珣와 成渾의 문묘중사, 상빈 신원, 김홍욱의 復爵이었다.

66) 왕의 친족 유해를 안치하는 관으로 소나무 중에서도 속이 노란 빛을 발하는 황장목(黃腸木)을 사용하였다. 황장목은 경북 울진군에서 갖고 오는 관제로 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는다.

67) 베니스의 개성상인의 저자 오세영은 2011년의 소설 「복벌」에서 효종의 죽음을 복벌을 관철시키려다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68) 이덕일의 2008년 저술 「조선왕독설사건」에서는 효종의 사인이 타살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69) 김자점(1588~1651) : 본관 안동. 자 성지(成之). 호 낙서(洛西). 성혼(成渾)의 문인.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성공하자 1등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빈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다. 효종 즉위 이후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산림(山林) 세력들이 대거 조정에 등용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복벌론이 대두되자 위협을 느끼고, 청나라의 앞잡이인 역관 정명수(鄭命壽) 등을 통해 그 계획을 청나라에 누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간들의 극렬한 탄핵을 받아 광양으로 유배되었고, 뒤에 아들 익(錫)의 역모사건이 발생하자 처형되었다.(Doopedia. <http://www.doopedia.co.kr>)

62) 효종 9년까지의 기록에선 병증에 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0년 이후의 기록은 자못 자세하다. 이에 반해 실록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대부분 간략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효종이 죽기 전까지는 건강했었다는 오해를 낳았다.

63) 『東醫寶鑑』 「消渴」 消渴傳變證 消渴之疾 末傳能食者 必發腦疰背瘡... ...猛火自炎 留於分肉 則發爲癰疽...

64) 중기 치료 과정과 사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효종의 중기 치료과정”, “효종의 사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65) 1659년 3월 11일 당시 이조판서 송시열을 불러 승지, 사관, 내관 등 주위를 모두 거둔 후 나는 대화로 『송자대전

한 북벌론을 내세운 효종과 산당의 대표격인 송시열은 갈등에 빠졌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효종을 암살하였다는 것이 암살설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인조반정을 통해 임금을 바꿀 정도로 급격히 臣權이 강화된 당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효종이 내세운 북벌론이 과연 실제적 북벌을 위한 것이었을까? 효종의 북벌론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효종은 소현세자가 죽은 뒤 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자점 등 친청파의 권력에 의해 권좌에 올라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효종의 전통성은 儒道를 중시하는 산림들에 특히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에 관한 콤플렉스에 대한 돌파구와 자신에게 비판적이던 산림을 끌어들이기 위해 산림의 주장인 북벌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박정희로 시작된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반공을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효종의 전통성에 관한 콤플렉스는 소현세자의 비었던 강빈의 역당⁷⁰)에 관한 효종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 친청파의 모의로 소현세자와 강빈이 억울하게 역당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해 산당의 여러 신하들이 강빈의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효종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심지어 강빈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한 김홍욱은 장형으로 죽음을 이르기도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정통성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효종은 산림의 영수 송시열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효종은 재위기간 내내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송시열을 조정으로 불러오려 하였고, 송시열이 조정에 들어온 직후 유례없는 독대를 하기도 할 뿐 아니라 사망 직전 효종이 찾은 사람은 송시열, 송준길이었을 정도로 송시열을 가까이 하였다. 기해독대도 송시열과의 갈등의 표출이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또 산림에게 효종의 북벌론

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힘입어 효종 재임 후기에 이르러 산당은 정권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었으며 그 수단으로 북벌론을 주장하였고 이는 산림의 정권 장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효종의 사후에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자. 효종의 정책 중 문반들의 불만을 샀던 것은 군사력 증강⁷¹)과 대동법의 시행이다. 어떠한 세력이 효종의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효종을 살해하였다면 이 정책들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승무정책은 효종이 북벌을 위해 시행하였지만 북벌을 내세우지 않았던 현종도 계속하여 군사력증강을 꾀하였다.⁷²) 동시에 산당은 선대의 뜻을 이어 일을 계속하여 청나라에 대하여 대비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효종의 북벌 정신은 산당을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⁷³) 또 대동법의 경우에는 효종 2년에 충청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문반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현종 대에 이르러 호남까지 확대되었을 정도로 주요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집권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효종의 승하로 당시 집권세력이던 송시열등의 산당이 기해예송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힘을 잃어가다 갑인예송을 통해 독보적 지위에서 남인과 비등한 권력해 질 정도로 주도권을 내주었다⁷⁴75). 즉 당시의 집권세력은 효종 사후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집권세력을 잡기위한 갈등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권력을위해 효종의

70) 소현세자 비인 강빈이 왕(인조)를 독살하려 모의하고 자신을 '내전'으로 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은 일.

71) 어영청 증액은 김육이 반대 하였고, 원로대신 李慶夔, 대사성 金益熙등은 군병보다 安民이 급선무라고 상소를 올렸다.(오향녕, 기억의 시넵스: 효종과 송시열, 그리고 정조. 동서철학연구. 2008. 48. pp.38-73.)

72) 현종은 질병치료를 위해 온천을 여러 번 찾았는데 그때마다 4,000~5,000 여명의 군사를 대동했으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상벌을 행하였다.

73) 현종실록 9년 11월 4일 송준길의 경연 내용에 관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74) 현종 15년의 갑인예송을 통해 현종은 산당(서인)과 남인의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75) 이러한 상황은 정조의 기록(정조, 『弘齋全書 卷4 春邸錄』 「兩賢傳心錄初序」)에도 남아 있다. 정조가 효종이 죽은 뒤로 송시열이 홀로 남아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하였다.

죽음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즉 효종의 암살배후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는 해석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효종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그의 말년의 치료과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의관들의 처분에도 의혹을 풀기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망의 직전에 침을 놓을 것에 관하여 유후성과 신가귀가 토론하였는데, 침 치료의 여부를 효종이 직접 결정했다. 의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결정은 효종 자신이 직접 한 것을 보아 어떤 세력이 의관을 통해 효종을 죽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유후성, 신가귀 등의 의관은 효종의 사후 임금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바로 국문되었는데, 효종의 죽음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신가귀는 효종 9년 다리 부위의 종기를 치료한 공로가 있어 형이 감하여졌으나 참형에서 교형으로 사형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었고, 유후성은 여러 신하들이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현종을 치료하기위해 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송시열에 의해 유배 보내졌다. 만약 의관을 통해 효종을 암살하려 하였다면 신가귀에게 가장 큰 공로가 있을 터인데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를 별하였다. 신가귀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다른 의관들 또한 죽여야 할 텐데 유후성은 유배 후 다시 복직되었다. 이러한 정황 또한 효종의 사인이 타살의 의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신가귀의 자침행위에 이미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의학적 분석

효종이 본래 건강하였는데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타살의 의도는 가능성이 있지만, 효종의 직접적인 사인, 즉 신가귀의 자침행위가 타살이라는 단정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종은 소갈병을 앓고 있었고 병이 깊어져서 9년부터 이미 종기의 증세를 앓고 있었다. 소갈이 진행되어 족부증상을 10개월여 앓고 있었을 정도로 효종의 건강상태는 극히 좋지 않았다. 사망 직전 증상이 나타날 당시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효종은

세자가 병이 위급하여 마음을 쓰고, 기우제를 지내느라 행차를 다니는 등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때 얼굴부위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증상이 위태롭게 된 후에야 내의원에 알렸다. 다시 말해 효종의 건강상태는 즉위 중기부터 소갈이 진행되었고 계속 악화일로로 진행되다 9년 초기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인이 된 얼굴부위의 종기도 위급해진 이후에야 의관들에게 알려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하기 힘들었다. 이렇듯 효종은 사망 직전까지 소갈과 그에 따른 족부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효종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종기의 치료과정과 사인에 대해 서양의학적 분석을 통해 그의 사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1) 종기 치료과정

효종은 3차례에 걸쳐 종기의 증상을 앓았는데 9년 1월 21일에 시작된 팔 부위의 종기와 9년 6월 18일 시작된 족부증상, 10년 4월 27일에 시작된 얼굴 부위의 증상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의 번열과 대변건조 같은 열증을 수반한 팔 부위(곡지부위)의 종기는 20일 정도 만에 치유되었다. 이때 사용한 처방으로는 양혈청화탕⁷⁶⁾, 선전화독탕⁷⁷⁾ 등의 탕제와 삼신고⁷⁸⁾, 황화묘, 노충, 봉밀로 제조한 고약이다. 이때 사용한 처방 중 양혈청화탕은 효종이 재위 3년 7월에서 9월, 8년 9월~10년에 자주 먹던 약으로 재임 후기에 이르러서는 빈발하게 먹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처방은 明代 공정현의 저작인 『壽世保元』 「소갈문」의 처방으로 효종이 재위 초부터 소갈의 증상을 앓았을 뿐 아니라 종기 증상이 소갈증에서 전변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혈청화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물탕⁷⁹⁾에서 숙지황을 생지황

76) 養血清火湯 『壽世保元』 「消渴」
當歸, 川芎, 白芍藥, 生地黃, 麥門冬, 石蓮肉, 天花粉, 知母, 黃連, 薄荷, 烏梅肉, 黃柏, 甘草

77) 仙傳化毒湯 『東醫寶鑑』 治癰疽 發背 乳癰 一切無名腫毒 未成立消 已成立潰
金銀花 天花粉 防風 黃芩 甘草節 白芍藥 赤茯苓 貝母 連翹 白芷 半夏 乳香 沒藥

78) 三神膏 『東醫寶鑑』 治癰疽 發背
草麻子 陳醋 塩

79) 四物湯 『東醫寶鑑』

으로 바꾸어 養血의 효능과 涼血의 효능을 겸하고 맥문동, 연육, 오미자로 진액을 보하고 지모, 황백, 황련, 박하, 천화분으로 열을 사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9년 6월 18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족부의 증기는 사망 때까지 진행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효종의 족부 증상은 9년 6월 18일 효종의 다리가 부었다는 기록으로 시작된다.⁸⁰⁾ 며칠 후에 번갈, 은진 같은 열증이 나타나고 족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침을 여러 번 놓았다. 이때의 족부증상은 효종이 앓고 있던 소갈병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東醫寶鑑』 「소갈문」의 소갈전변증에도 나타나 있듯이 소갈병이 치료되지 않고 진행되면 증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양의학적으로도⁸¹⁾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 신경 병증으로 발이 통증에 둔감해지면 상처를 받기 쉬워지며, 여기에 고혈당과 혈액 순환 장애가 추가 되면 상처 치유가 매우 어려워지는데,⁸²⁾ 이들 병변 중의 일부는 괴사로 진행되거나 심한 감염증으로 인하여 족부절단이 필요한 경우로 악화되기도 한다.⁸³⁾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침을 수차례 맞았다는 기록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소갈병을 앓는 경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법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성생활을 하지 말 것,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 것, 침과 땀을 뜨지 말 것을 들고 있는데 어의들이 이 금기를 어기고 침을 놓은 것이다. 이러한 침치료의 시술로 7월 3일에는 침놓은 구멍에서 진액이 나오고 고름이 잡히며 다리가 저리고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침 치료 후 효종이 건강을 돌보지 않아 소갈의 열독이 침 자리에 몰려서 나타난 것이다.⁸⁴⁾ 이때 신가귀가 환부

를 침으로 찔러 출혈시키는 치료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⁸⁵⁾⁸⁶⁾ 족부 증상이 나타난 이후 매달 한번 씩 감모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이 시기에 사용한 처방은 거의 대부분이 기혈을 보하는 보종익기탕, 십전대보탕, 팔진탕 종류의 처방과 감모 처방이 대부분이다.⁸⁷⁾

10년 4월 27일에 기록된 마지막 증기 증상은 얼굴부위에 나타난 것으로 효종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세자가 4월 16일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여 점차 혼절까지 할 정도로 증상이 위급해져 세자를 살피고,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기우제를 지내느라 수차례 거동하느라 자신의 증기증세를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4월 27일에 증세가 위급해져서야 내의원에 알리게 된다. 이미 증세가 어느 정도 위급해진 후라 4일 후 바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때 형방패독산으로 독기를 풀고자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족부증상에서 신가귀의 침으로 효과를 본 효종은 유후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던 신가귀를 불러 침을 시술하게 하였다. 침을 맞고 혈액이 유출되는 와중에 효종은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라고 하여 다소 호전되는 듯 보였으나 출혈이 그치지 않아 사망하였다.⁸⁸⁾

2) 사망 전후 분석

사망의 전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망 전 효종의 갈증, 소변증상, 기력저하, 족부증상 등 모두 당뇨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뇨병으로 감염에

當歸, 芍藥, 熟地黄, 川芎

80) 落傷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떻게 다친 것인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81) 소갈병 중 일부는 서양의학의 당뇨병과 일치한다.

82) 의학교육연수원.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842.

83) 이문규 外 5인. 당뇨병성 족부병변의 임상적 관찰. 대한당뇨병학회지. 1984. 8(1). pp.55-65.

84) 서양의학적 맥락에서 볼 때 당뇨병 환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데 효종의 경우 침 시술 후 감염에 대한 관리 소홀로 감염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당뇨병성 신경병변으로 족부감각, 운동 이상이 온 것으로 생각된다.

85) 이때의 효과가 10여 개월 후 사망 당시 신가귀로 하여금 얼굴 부위의 증기에 다시 출혈 치료법을 시술하게 만들었다.

86) 동시대의 어의인 유후성 또한 인조 대에 散鍼이라는 독특한 증기 치료법으로 이름을 떨쳐 의관으로 천거될 정도로 외과적 시술방법은 당시 증기치료에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었다. 이 시술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시술 후의 관리나 정확한 봉합법등의 부재로 부작용 또한 존재하였다.

87) 소갈에 응저나 창만이 생기면 치료하지 못한다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보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기혈을 보하여 체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으로 치유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88) 효종실록 10년 5월 4일의 기록에 당시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취약한 상태에서 즉부에 행하여졌던 침 시술 등으로 감염이 일어났고, 이 감염은 패혈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패혈증⁸⁹⁾은 진균 혹은 세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혈액 및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중증패혈증과 중증패혈증 shock의 형태로 나타난다.⁹⁰⁾ 중증패혈증의 20~35%, 패혈증 쇼크의 40~60%의 경우에 30일 이내 사망하나 발병 이후 6개월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또 패혈증의 50~70%는 초기에 경한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는데 효종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패혈증의 임상양상 중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응고장애이다. 패혈증 환자 10~30%가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며 이는 미관성 내피세포의 손상이나 미세혈관 혈전증을 의미한다. 즉 패혈증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체 곳곳에 염증반응으로 종기 등이 생겨날 수 있다.⁹¹⁾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혈관내피 세포 손상에 의한 혈액의 유출과 미세혈전에 의한 조직의 기질 활용도가 저하되어 응고 장애를 초래한다. 이러한 응고 장애로 인해 작은 출혈이라도 정상적으로 지혈이 되지 않는데 이는 효과적인 지혈방법이 없다면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⁹²⁾ 효종의 경우 즉부 감염으로 패혈증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은진발작 및 이마부위의 종기가 발생하였으며, 시술시 발생한 출혈이 패혈증으로 인해 지혈되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효종의 죽음에 관한 다른 의혹으로 사후에 재궁이 맞지 않아 널빤지도 덧대어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을 들어 그의 시신이 壽과 같은 원인으로 심하게 부어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들고 있다.⁹³⁾ 하지

만 인체가 사후에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시신을 오래 방치하여 부패가스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사천왕 현상 외에는 없다. 즉 생전의 부종이 아니라면 5월 4일에 사망하여 바로 염습한 시체에 부종이 나타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단 이야기다. 생전에 소갈로 인한 신장 합병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부종이 있었다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관이 효종 시신에 비해 작아서 널빤지로 덧대었다는 것은 시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궁을 만들 때 치수를 잘못 재어 생긴 일이다. 어떠한 부종의 경우에도 신장의 변화는 초래하지 않는데 관의 크기가 너무 뿐 만 아니라 길어도 부족했다는 기록 또한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준다.⁹⁴⁾

결론적으로 효종의 사인은 소갈과 그에 따른 즉부증상 등으로 악화된 체력과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다. 상기의 효종의 종기치료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종기의 주된 치료방법은 침으로 종기를 짜내어 고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⁹⁵⁾. 허나 오랫동안 질병으로 허약해진 효종의 건강상태가 외과적 치료를 견뎌내기 힘들었을 뿐 더러, 패혈증으로 인해 혈액응고 장애가 있어서 이마부위의 혈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다. 효종의 주된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 효종의 사망시간을 추측해보면 확실해진다. 세자가 수라를 드신 후에 침을 맞을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하고 침을 맞아 午~巳시에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임금의 아침 수라와 그전에 간단히 먹는 이른 밥, 낮점심, 저녁수라, 야참으로 하루 5번에 걸쳐 식사를 하였다. 이 중 이른 밥을 6시에 시작되는 조회를 전후하여 먹었으니 세자가 수라를 들기 권한 시간은 빨라야 일과가 시작되는 5시 경일 것이다.⁹⁶⁾ 정리하면 효

89) 패혈증은 한의학적으로는 血毒, 血熱로 볼 수 있는데 독기가 血에 침범하여 血의 운행 속도가 증가한다거나, 출혈이 잘 일어나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현상과 유사하다.

90) 아래 이어지는 패혈증에 관한 내용은 (대한내과학회 편, 해리내과학 15e, 도서출판 MIP, 2003, pp.820-825.)에서 참조하였다.

91) 즉부 증상이 나타나고(9년 6월 18일) 침을 맞은 후 6월 24일부터 은진발작의 증상도 패혈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92) 서양의학적으로도 효종의 일대기 동안 나타난 증상들은 당뇨병으로 보이고, 이러한 당뇨병으로 인해 즉부증상과 이마부위의 종기증상 및 사인이 된 출혈증상이 일어났다.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용환 교수의 자문)

93) 임금의 관을 다시 만들지 않고 덧댄 것은 당시 장례절차

에서 날짜가 중요하고 재궁을 만드는 나무를 이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제작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종실록 즉위년 5월 6일 기사 참조.

94)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자문

95) 현종실록 10년 11월 17일 기사를 보면 종기를 채고 출혈시키는 시술 때문에 죽은 효종의 아들 현종도 턱 부위의 종기를 치료할 때 침으로 따는 시술을 받았다.

96)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 서울, 청년사, 2001, pp.93-10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서울, 역사비평사,

중이 침을 맞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대 6시간이 경과하였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대동맥과 같은 큰 혈관 손상이 아닌 중소혈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았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⁹⁷⁾ 즉 효종의 타살설과 무관하게 직접적인 사인은 이전에 앓고 있었던 소갈로 유발된 패혈증에 따른 응고장애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과연 타살을 하려는 세력이 그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겠지만, 신가귀의 자침행위로 타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무리가 많은 주장인 것은 분명하다.

III. 결 론

醫案은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의서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의료의 구체적 실행 과정을 보여준다.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조선시대 임금의 의안과 의학 관련 내용에는 임금의 일대기에 걸친 질병과 진찰, 처방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병증과 치료 등의 의학적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朝鮮王朝實錄』과는 달리 당시의 의료를 상세하게 나타내주어 당시의 임상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복별론으로 유명한 효종은 광해군 11년(1619) 5월 22일 인조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17대 임금이 된 인물이다. 효종은 군사력의 증강과 군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듭된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군사력 증강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림층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인종, 선조, 소현세자, 정조, 고종 등 독살설에 휘말린 왕들과 더불어 그의 사망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토대로 효종의 질환들을

분석해 본 결과 재위기간을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감기, 두 번째는 열증기, 세 번째는 종기기이다. 외감기에는 내상의 증상보다는 외감의 증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외감협내상증과 외감후유증을 살펴볼 때 소화기계가 약하며 여러 증상들이 열증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증기에는 내상의 증상이 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소갈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처방 또한 소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시기에는 소갈이 전변되어 신체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종기 증상이 나타났고 종기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였다.

효종의 사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정황상으로 효종이 암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효종은 오랜 기간 소갈을 앓았고 그 전변증으로 인해 종기가 나타났고 이 종기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였다. 고대의학에서의 소갈과 현대의 당뇨병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고대기록만으로 당뇨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효종의 말기증후는 현재의 당뇨병의 병력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리고 효종의 사인이 타살로 볼 수 있는 정황은 효종의 사인에 관한 의혹은 재궁이 맞지 않는 것, 건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 수전증이 있는 의관이 침을 놓은 것 등이 있다.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재궁이 맞지 않은 것은 단지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였다. 또 사망 전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간략적인 의학적 기록만을 살펴보고 추측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承政院日記』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효종은 사망 전 소갈증을 오랜 기간 앓아왔고 사망 전 과중한 업무와 기우제, 세자의 건강악화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증세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병에 소홀한 상황이었다. 소갈증상이 심한 상황에서 침을 맞을 것을 주장한 의관의 잘못이 없진 않지만, 침을 맞아야 한다는 의관과 침을 맞으면 안 된다는 의관의 사이에서 효종 자신의 선택을 통해 침을 맞았다는 것은 타살의 근거로는 희박하다. 또 출혈이 그치지 않아 사망한 것과 출혈 후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고찰하여 볼 때 의관이 타살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소

2000, p.139.

97) 적절히 지혈되지 않는 출혈의 경우 손상 혈관이 척골 등, 정맥 같은 주요 대혈관이라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작은 혈관이라면 6시간 이내에 사망한다.(한양대병원 마취 통증의학과 중환자관리팀 유희구 교수의 자문)

갈, 즉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의 말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어야할 듯하다.

References

1.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
2. Heo Jun. Donguibogam(東醫寶鑑). Seoul. Donguibogam Publishing. 2005
3. King Jeongjo. Hongjaejunseo(弘齋全書).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Seoul, 1998.
4. National Teacher Training Center. Family Medicin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p.842.
5. Tingxian Gong. Shoushibaoyuan(壽世保元).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1999.
6. E. Braunwald, transla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5e. Seoul. MIP. 2003. pp.820-825.
7. Jeong Yeon-sik. The story of daily life in Joseon Dynasty Vol.2. Seoul. Chungnyunsa. 2001. pp.93-106.
8. The Society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Lifestyle history of the Joseon period Vol.2. Seoul. Yuksa-bipyongsa. 2000. p.139.
9. Kim Nam Il. The Need and Meaning of Studying Medical Records in the Korean Medical Histor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5. 18(2). p.189.
10. Kim Hoon. The study on disease & death of HyoJong(孝宗) in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4. 17(2). p.129.
11. Kim Hoon. The research of the crown prince So-Hyeon's death caus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3). pp.210-227.
12. Hong Se Young. Kim Nam Il. A Study on the Clini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8. 21(2). pp.1-11.
13. Jongoh Kim, Junho Oh, Namil Kim. A Study on the Use of the Medicinal Tea in Chosun Dynasty.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9. 15(3). pp.11-17.
14. Hong Se Young, Wung-Seok Cha. A study of the Clinical Records in Seungjeongwon Ilgi. Minjokmunhwa. 2009. (33). pp.103-174.
15. Shin, Myung-Ho. A Study On The Crown Prince So-Hyeon's Illness Symptoms and Death Causes Through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2010. (100). pp.109-137.
16. Seyoung Hong. Clinical discussion in Royal Court of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0. 23(1). pp.105-113.
17. Kim Hoon, Lee Hai-woong.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Heonjong in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 23(1). pp.115-124.
18. Dohyun Kang. Observations of King Hyojong's medical archives through 『承政院日記(Seungjeongwonilgi)』. Master's degree paper of KyungHee University. 2010.
19. JUNG Jae Young, LEE Jun-Hwan, CHUNG Seok Hee. The Influence of Donguibogam (東醫寶鑑) during the Middle Joseon Era Based on Clinical Records on Low Back Pain in Seungjeongwon ilgi (承政院日記).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1.

- 20(1). pp.1-28.
20. Sang-Won Lee, Wung-Seok Cha.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King Hyeonjong's Diseases and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fucian Funerary Ritual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1. 24(1). pp.17-30.
21. Dong-Ryul Kim, Tae-Woo Kim, Wung-Seok Cha. A Study of King Kyung-jong's Medical History I -According to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Yak-Bang(藥) Record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 25(1). pp.11-22.
22. Dae-Won Ko, Dong-Ryul Kim, Tae-Woo Kim, Wung-Seok Cha. A study on the Clini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a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 25(1). pp.43-51.
23. Hyuk-Kyu Kim, Nam-Il Kim, Do-Hyun Kang, Wung-Seok Cha. A review on disease records of King-Injo of Chosun Dynasty — based on the records from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 25(1). pp.23-41.
24. Sung-Hye Pahng, Wung-Seok Cha. A Study of Queen Inhyun's death through the Clinical Records in Seungjeongwon Ilgi.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2. 18(1). pp.1-11.
- Kim Hoon, Lee Hai-woong.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Sunjong in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3. 26(2). pp.149-160.
25. Dong-Ryul Kim. Influence of Heebin Jang's death on King Kyeongjon's health :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from 「SeungJungWon-Ilgi」. Master's degree paper of KyungHee University. 2013.
26. Dong-Ryul Kim, Nam-il Kim, Wung-Seok Cha. A Study of King Kyung-jong's strange diseases according to Medical records from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3. 26(1). pp.41-53.
27. Dongryul Kim, Ji-Hun Jung. Study of the Hypothesis of Kyung-Jong's pois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4. 27(1). pp.15-31.
28. Seo Ji Yeon. A study of Yim Eon Kook's abscess medicine(治腫醫學). Master's degree paper of KyungHee University. 2008.
29. Hang Nyeong Oh. Synaptic Memory: A Case of Hyojong, Song Si-yeol and Jeongjo.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2008. 48. pp.38-73.
30. Lee, M.K., Chung, M.H., Won, A.O., Kim, S.Y., Lee, H.K., Min, H.K.. Clinical Observation on the Diabetic Foot Lesions.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1984. 8(1). pp.55-65.
31. Doosan Corporation. Doopedia.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
3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承政院日記).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33.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34. Song Si-yeol. Songjadaejeon(宋子大全). Available from: <http://www.itkc.or.kr>